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 『영재교육연구』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by Period of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저자 (Authors)	채유정, 이현주, 이성혜 Yoojung Chae, Hyunjoo Lee, Sunghye Lee
출처 (Source)	영재교육연구 28(4), 2018.12, 387-414 (28 page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8(4) , 2018.12, 387-414 (2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영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591917
APA Style	채유정, 이현주, 이성혜 (2018).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 『영재교육연구』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8(4), 387-414.
이용정보 (Accessed)	KAIST 143.***.220.97 2019/03/12 09: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 『영재교육연구』 연구동향 분석

채 유 정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이 현 주

명지대학교

이 성 혜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된 2003년부터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종료된 2017년까지의 최근 15년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2003~2017년 간의 ‘영재교육연구’ 학술지 논문 총 515편이었으며, 연구 논문의 기본 요소인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영역(교과), 및 연구방법 등의 4개 대분류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고, 각 대분류에 따라 하위 및 세부 변인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또한, 1차, 2차,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에 따라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위의 각 분류들에 대한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3~2007년에는 학습자 대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가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주제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영역으로는 수학 및 과학 영역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영역일반 연구가 38.5%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양적연구-비실험연구 및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2008~2012년에는 교사관찰추천제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고, 특정 분야 영재성뿐만 아니라 영역 일반적 영재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나, 수학 및 과학영역 연구가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다. 양적연구-비실험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질적연구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2017년에는 영재성 연구 영역이 다소 확대되어 음악, 미술, 발명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교사관찰추천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다. 또한, 수업개발, 적용 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영재교육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영재교육, 영재교육연구, 영재교육 연구동향, 영재교육 연구 현황

I. 서 론

올해 2018년은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이 실시된 지 약 15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1차~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완료되었고 2018년부터는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영재교육에서 15년간의 역사적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영재교육을 위한 제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2017년 기준, 전국 초·중등학생의 1.91%인 109,266명이 영재교육 대상으로 선발되어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약 15년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또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실시와 함께 영재교육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시도 및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영재교육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이다. 영재교육 관련 연구를 통해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이슈를 발견하여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영재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박경빈, 2012; 한기순, 양태연,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된 2003년부터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종료된 2017년까지의 최근 15년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과 2002년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후 이를 토대로 5년 단위로 해당 기간의 영재교육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해 왔다. 「1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2003~2007년)」은 앞서 마련된 법·제도를 바탕으로 우수 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세계적 수준의 소수 정예 인력 양성’을 목표로 6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03). 「2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2008~2012년)」은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전체 초·중·고생의 1%(7만 여명)에게 영재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기관 운영개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지원체제 정비 등 5개 영역을 세부 목표로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08). 「3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2013~2017년)」은 창조경제 시대 국가 혁신 핵심 전략으로써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실현계획의 일부로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재교육 기회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의 측면에서 주요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였다(교육부, 2013). 이와 같이 1차 종합계획 시기에는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영재육성 체계를 확립하고 영재교육의 양적·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2차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중장기 비전을 재정립하고 잠재능력이 큰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3차 종합계획은 영재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비전 제시와 함께 영재교육을 통한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 발현을 중점 목표로 추진되었다.

<표 1> 시기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

시기/목표	방향	추진과제
1차 (2003~2007) 국가발전에 기여할 세계적 수준의 소수 정예 인력 양성	영재성 개발 기회 확대	영재교육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영재교육 분야의 다양화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기관 운영 특성화
	고등교육 단계와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대입전형 방법 개선 대학의 수월성 프로그램 운영 조기이수 인정제도 도입
	영재교육 담당교육의 전문성 제고	영재학급에 맞는 교원임용시스템 우수교원 양성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연구지원 기능강화	영재교육연구원 운영 교수 학습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 원격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
	영재교육 지원 체제 구축	영재교육관련 법제도 개선 영재교육 행·재정 지원 강화 영재교육 가이드라인 설정
2차 (2008~2012)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영재교육 기관 특성화	영재학교 특성화 영재학급 특성화 영재교육원 특성화
	영재교육 기관 운영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사회적 통합성 강화 고등교육 단계의 영재교육 기능 강화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우수 교원 확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연수·배치 체계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강화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	관계 법령·제도 정비 영재교육 유관 기관 협력체제 강화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영재선발 방법의 타당성 제고
3차 (2013~2017) 영재교육 취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 영재교육기관 다양화·효율화 영재교육기관 지원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과정 제공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식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우수교원 확보·지원강화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 영재교육 교원 지원환경 개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행정 지원체제 효율화 영재교육 정보·교류지원 강화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 영재교육 국제화

이와 같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교육의 도입, 발전, 도약기에 영재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사회적인 인력양성 계획과 맞물려 시기별로 다양한 인재양성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차~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시행이 완료되고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간의 영재교육 연구가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어떻게 관련되어 이루어져 왔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의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보고서를 분석에 포함한 연구(이상희, 최선일, 2015)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동향 분석의 관심 영역은 영재교육 전반(박경빈, 2012; 윤진아, 김수진, 서혜애, 2016; 최병연, 이명숙, 2015; 한기순, 양태연, 2007)이 가장 많았으며, 교과별로 과학(강경희, 2010; 윤진아, 서혜애, 2016), 수학(민경아, 유미현, 고호경, 2011), 예술(이은선 외, 2017), 융합(안혜란, 유미현, 2015; 이정석, 김용권, 2016), 정보(박혜란, 정웅열, 이영준, 2017; 이정재, 2016) 영역에서 각각 영재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의 영재교육으로 한정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신동, 엄윤재, 2018).

<표 2>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 정리

논문	분석대상	분석영역	분석기준
이신동, 엄윤재(2018)	2004~2018 국내학술지 논문 36편	경제적 소외계층 영재교육	연구출처 연구연도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장소
박혜란, 정웅열, 이영준(2017)	2003~2016 국내학술지 논문(등재지) 75편	정보영재교육	연구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이은선 외(2017)	2000~2015 국내학술지 98편 및 학위논문 92편	예술영재교육	연구주제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윤진아, 서혜애(2016)	2010~2015 국내학술지(등재지 8종) 275편	과학영재교육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이원모드 네트워크
윤진아, 김수진, 서혜애(2016)	2010~2015 ‘영재교육연구’ 및 ‘영재와 영재교육’ 학술지 논문 457편	영재교육 전반	키워드 연결중심성
이정석, 김용권(2016)	2011~2015 국내학술지 21편 및 학위논문 35편	융합영재교육	발표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이정재(2016)	2000~2012 학위논문 80편	정보영재교육	연구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논문	분석대상	분석영역	분석기준
이상희, 최선일(2015)	2003~2012 국내학술지 1,686편, 학위논문 1,608편, 연구보고서 798편	영재교육 전반	연구대상 영재유형 연구주제 연구방법
안혜란, 유미현(2015)	2009~2014 국내학술지 및 학위논문 52편	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연구대상 중심교과 융합요소 융합유형 교수학습모형 프로그램 효과
최병연, 이명숙(2015)	2010~2014 ‘영재와 영재교육’ 학술지 논문 86편	영재교육 전반	연구대상 영재성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박경빈(2012)	2006~2012 ‘영재교육연구’ 학술지 논문 228편, 기타 국내 학술지 논문(등재지) 754편, 박사학위논문 132편	영재교육 전반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민경아, 유미현, 고효경(2011)	2000~2010 국내학술지 논문(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10종) 168편, 학위논문 295편	수학영재교육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연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강경희(2010)	1999~2009 국내학술지 논문(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8종) 191편	과학영재교육	연구출처(학회지) 연구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한기순, 양태연(2007)	2000~2006 국내학술지 논문 521편, 학위논문 49편	영재교육 전반	연구대상 영재성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들은 대체로 유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공통적인 분석기준은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이었다. 먼저 연구 대상은 전반적으로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부모, 교사, 전문가 및 문헌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최병연, 이명숙, 2015; 한기순, 양태연, 2007)에서 연구대상의 특징을 수학/과학 영재, 언어 영재, 예술/체육 영재, 미성취 영재, 소외 영재 등과 같이 영재성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하였다. 연구주제 분류는 주로 한기순, 양태연(2007)과 박경빈(2012)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 및 영역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순, 양태연(2007)은 1) 법령, 전망과 기대, 방안, 동향, 제도, 2)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 3) 영재의 인지적 특성, 4) 영재의 정의적 특성, 5)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수업모형, 교수학습, 6) 평가, 7) 선발 및 판

별, 8) 창의성, 9) 문제해결력, 문제발견력, 10) 부모 및 가족 관련, 11) 교사관련, 12) 외국사례로 연구주제를 나누었으며, 박경빈(2012)은 1) 수학, 과학, 2) 언어, 예술, 3) 발명, 정보, 4) 정서, 5) 창의성, 6) 인지, 7) 판별, 8) 진로, 9) 교육환경, 프로그램, 10) 영재교사, 11) 정책, 12) 멘토십, 13)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영재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예술 등 각 분야별 연구 역시 유사한 주제 분석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셜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의 키워드 추출방식으로 과학영재교육 연구의 주제를 도출한 윤진아, 김수진, 서혜애(2016)의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창의성, 영재교사, 성취도, 판별, 문제해결, 자기주도학습 등과 같이 기존 문헌 분석 방식보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이 나타나 새로운 분석 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연구방법도 연구에 따라 대동소이 하지만 대체로 실험연구,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검사도구 개발 연구 등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동향 분석 연구 중 안혜란, 유미현(2015)의 연구는 유일하게 분석대상 연구를 융합영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분석틀과 다르게 융합교육의 맥락에서 중심교과, 융합요소, 융합유형, 교수학습모형, 프로그램 효과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시된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결과는 분석대상이 포함된 기간 및 논문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하지만 대표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영재교육 관련 연구가 수록된 182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2-2012년 사이의 영재교육연구 전반을 분석한 최근 이상희, 최선일(2015)의 연구에서는 대상별로는 초·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문헌 등의 순으로 연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재성 영역별로는 수학·과학, 예술·체육, 언어, 소외, 미성취 영재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인지적특성, 전망 등 제도, 사회/심리적 특성, 창의성, 선발 및 판별, 영재성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 문헌연구, 관계 연구,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개발 연구, 조사 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 대상을 전체 학술지가 아니라 ‘영재교육연구’로 한정한 박경빈(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에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대상은 중학생, 초등학생, 교사 순이었으며, 연구 주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인지적/정서 특성, 판별 등의 순이었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는 질문/설문지 연구, 실험연구, 사례분석, 문헌분석 등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소셜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한 윤진아, 김수진, 서혜애(2016)의 연구는 과학영재, 창의성, 영재교사, 성취도, 판별, 문제해결, 자기주도학습, 수학영재, 관찰추천 등을 주요 주제로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분석 대상 논문, 분석 기간, 분석 기준 등 다양한 목적 및 관점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로 단기간의 연구물을 분석해 온 영재교육 동향분석 연구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시행된 2003년부터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종료된 2017년까지의 최근 15년 간의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 양상을 파악하고 추후 수행되어야 할 연구영역 및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1차~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

로 연구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03년~2017년 『영재교육연구』에 나타난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이 어떠한가? 또한, 제 1~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 영재교육 연구동향이 어떠한가?

1. 연구대상 양상이 어떠한가?
2. 연구주제 양상이 어떠한가?
3. 영재영역(과목) 양상이 어떠한가?
4. 연구방법 양상이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문헌수집 및 선정 기준

최근의 국내 영재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논문을 선정 하였다. 첫째,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부터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행 시기인 200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최근 1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영재교육 전문학술지 중 창립/한국학술진흥재단(KCI) 등재지 선정 역사가 긴 학술지인 『영재교육연구』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총 515개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논문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연구대상 논문

연도	권	발행호 수	대상논문 수	연도별 비율
2003	13	4	25	4.9
2004	14	4	27	5.2
2005	15	2	12	2.3
2006	16	2	13	2.5
2007	17	3	22	4.3
2008	18	3	19	3.7
2009	19	3	30	5.8
2010	20	3	44	8.5
2011	21	4	53	10.3
2012	22	4	48	9.3
2013	23	6	56	10.9
2014	24	6	49	9.5
2015	25	6	47	9.1
2016	26	4	36	7.0
2017	27	4	34	6.6
15년 자료		58(호)	515(개)	100.00%

2. 분석변인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논문의 기본 요소인 연구대상, 연구주제, 영재영역(교과) 및 연구방법

등의 4개 대분류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고, 각 대분류에 따라 하위 및 세부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양한 연도에 출간된 7개의 논문을 먼저 분류, 분석 후 분석틀을 작성하였고 4명의 영재교육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분석틀을 확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분석틀을 15년 동안 출간된 논문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도별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변인에 대한 분석틀은 <표 4>와 같다.

<표 4> 논문 분석틀

대분류	하위분류	세부 분류
연구대상	학습자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성인, 기타
	교사 및 전문가	
	학부모	
	문헌	
	기타	
연구주제	정책, 제도, 현황	정책 및 제도, 현황 및 실태, 법령, 기타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수학습전략,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프로그램개발, 사례, 효과성 분석, 프로그램, 기관평가, 기타
	영재특성	인지적특성, 정의적특성, 행동적특성, 생물학적 특성, 창의성, 환경, 진로, 인식
	선발, 판별	수학영재성, 과학영재성, 음악영재성, 미술영재성, 무용영재성, 인문사회영재성, 발명영재성, 창의성, 관찰추천(수학/과학/일반), 영재성일반, 기타
	교원	인식, 전문성, 연수, 수업 및 교수법, 평가, 기타
	부모, 가족	부모태도 및 양육태도, 부모성격, 부모지원, 인식, 스트레스, 부모상담, 교육, 기타
	기타	
교과 영역	수학	
	과학	
	융합	
	인문사회, 언어	
	예술	
	발명	
	정보(SW)	
연구방법	영역일반	
	기타	
	문헌연구	
	조사연구	
	양적연구-실험연구	
	양적연구-비실험연구	집단비교, 상관 및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기타
	질적연구	
	혼합연구	
	프로그램 개발	
	도구 개발	
	네트워크 분석	
	기타	

3. 분석자 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2017년 출간된 논문 중 10편에 대하여 제1저자와 3명의 공동저자(영재교육 및 특수교육 전공 박사 4명)가 각 문헌을 합의된 분석틀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하여 분석에 대한 일치된 관점을 확인하였다.

그 후 전체 논문에 대한 분석 실시 후 분석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였다: (분석자 간 분류가 일치된 논문 수/분석한 전체 논문 수)×100. 그 결과, 연구대상에 대한 신뢰도 확인 결과는 98.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주제별 분석(하위 및 세부 분류 포함)은 97.1.8%, 교과영역은 95.2%, 연구방법은 99.5%로 4개 대분류 영역에서 모두 분석자 간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대하여 불일치를 보인 논문에 대해서는 제1저자의 주제 하에 분석자 간 합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분석코딩을 변경하였다.

IV. 연구결과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5년간 발간된 총 515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관련 영역(과목),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각 논문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교사 및 전문가, 학부모, 문헌, 기타 등의 5개 영역 중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석논문은 515편이었으나 한 논문에 두 가지 이상의 연구대상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하였을 때 연구대상은 총 541건이었고, 그 중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총 382건으로 전체 연구의 약 70.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사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가 82건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15.2%였으며, 문헌 28건(5.2%), 학부모 25건(4.6%), 기타 24건(4.4%) 순이었다(<표 5>).

<표 5> 연도별 연구대상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학습자	24	18	11	11	17	11	16	35	43	44	36	33	34	24	25	382
2) 교사 및 전문가	1	2		1	2	4	2	8	5	5	11	14	9	10	8	82
3) 학부모						4	4	3	1	4	3	3		2	1	25
4) 문헌		3	1		2		2		2	1	8	4	3	1	1	28
5) 기타	1	3		1	1	2	6	1	2		2	1	1	1	2	24
계	26	26	12	13	22	21	30	47	53	54	61	54	47	38	37	541

2003~2017년까지의 연구대상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 편수로 는 2013~2017년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같은 시기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5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수행되었다. 각 시기에 이루어진 총 연구에 대한 비율로 보면 2003~2007년에는 약 81.8%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부분의 연구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8~2012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72.7%, 2013~2017년에는 64.1%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3~2007년 6.1%에서 11.7%, 21.9%로 점차 증가하여 연구대상이 학습자에서 교사 및 전문가로 다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시기별 연구대상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학습자	81	81.8	149	72.7	152	64.1	382	70.6
2) 교사 및 전문가	6	6.1	24	11.7	52	21.9	82	15.2
3) 학부모		0.0	16	7.8	9	3.8	25	4.6
4) 문헌	6	6.1	5	2.4	17	7.2	28	5.2
5) 기타	6	6.1	11	5.4	7	3.0	24	4.4
계	99	100	205	100	237	100	541	100

위에서 분류된 연구대상 중 학습자의 학교급 및 연령이 추가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과 마찬가지로, 한 논문에서 여러 종류의 학교급 학생이 모두 연구대상인 경우, 예를 들어, 연구대상자가 초, 중, 고등학생 그룹을 모두 포함한 경우 이를 각 학교급으로 각기 분류한 결과, 학습자의 학교급/연령으로 분류된 건은 총 450건이었다. 분석 결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60건(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초등학교 150건(33.3%), 고등학교 96건(21.4%) 순으로 많았다. 그 외, 대학생 16건(3.6%), 유아 10건(2.2%), 성인 7건(1.6%)으로 10% 미만이었다(<표 7>).

<표 7> 연도별 연구대상(학습자): 연령/학교급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유아	2	2		1			1	1		1			1		1	10
2) 초	6	1	4	3	6	5	10	15	18	19	15	17	14	10	7	150
3) 중	11	7	4	5	7	7	2	16	24	16	14	10	15	10	12	160
4) 고	8	6	4	3	3	1	4	8	4	7	12	10	12	7	7	96
5) 대학생	1			2	3			1	1			4	2	1	1	16
6) 성인		2		1	1				1			1			1	7
7) 기타		2							1	5	3					11
계	28	20	12	15	20	13	17	41	49	48	44	42	44	28	29	450

2003~2017년까지의 연구대상 중 학습자의 연령/학교급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3~2007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5.8%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았고,

2008~2012년에는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39.9%, 중학생은 38.7%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2013~2017년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33.3%, 35.6%의 연구가 이루어져 두 학교급의 학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아, 대학생 및 성인에 대한 연구는 각 시기 5% 내외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연구가 초, 중, 고등학교 학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시기별 연구대상(학습자): 연령/학교급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유아	5	5.3	3	1.8	2	1.1	10	2.2
2) 초	20	21.1	67	39.9	63	33.7	150	33.3
3) 중	34	35.8	65	38.7	61	32.6	160	35.6
4) 고	24	25.3	24	14.3	48	25.7	96	21.3
5) 대학생	6	6.3	2	1.2	8	4.3	16	3.6
6) 성인	4	4.2	1	0.6	2	1.1	7	1.6
7) 기타	2	2.1	6	3.6	3	1.6	11	2.4
계	95	100	168	100	187	100	450	100

2. 연구주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모두 분류한 결과, 총 630건의 연구주제가 도출되었다. 영재 특성에 대한 주제가 총 347건(5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124건, 19.7%)가 많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는 선발 및 판별(54건, 8.6%), 정책, 제도 및 현황 42건(6.7%), 교원 40건(6.3%), 부모, 가족 관련 논문(19건, 3.0%)의 순이었다(<표 9>).

<표 9> 연도별 연구주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정책, 제도, 현황	1	1		2	3	1	3	2	4	4	6	2	5	4	4	42
2) 교육과정, 프로그램	9	13	2	4	3	5	7	9	13	11	6	14	9	10	9	124
3) 영재특성	15	11	6	7	12	11	20	27	38	30	48	38	35	24	25	347
4) 선발, 판별	3	2	4	1	4	1	2	7	4	7	4	4	5	3	3	54
5) 교원	1	1		1	3	2	1	3	1		6	7	6	4	4	40
6) 부모, 가족						5	4	2	1		4		1	2		19
7) 기타							1		1		2					4
계	29	28	12	15	25	25	38	50	62	52	76	65	61	47	45	630

연구주제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 모두 영재특성에 대한 연구가 절반 가량 이루어졌고(각각 46.8%, 55.5%, 57.8%), 그 다음으로 교육과

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각 28.4%, 19.8%, 16.3%). 즉,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다수의 연구가 실제 영재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관한 연구는 2003~2007년 5.5%, 2008~2012년 3.1%의 낮은 비율로 연구되었으나, 2013~2017년에는 9.2%까지 증가하여, 최근 관심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0>).

<표 10> 시기별 연구주제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정책, 제도, 현황	7	6.4	14	6.2	21	7.1	42	6.7
2) 교육과정, 프로그램	31	28.4	45	19.8	48	16.3	124	19.7
3) 영재특성	51	46.8	126	55.5	170	57.8	347	55.1
4) 선발, 판별	14	12.8	21	9.3	19	6.5	54	8.6
5) 교원	6	5.5	7	3.1	27	9.2	40	6.3
6) 부모, 가족			12	5.3	7	2.4	19	3.0
7) 기타			2	0.9	2	0.7	4	0.6
계	109	100	227	100	294	100	630	100

가. 정책, 제도 및 현황

정책, 제도, 현황과 관련된 논문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42건의 연구물 중 26건(61.9%)의 연구물이 현황 및 실태에 관한 논문이었고, 정책 및 제도 7건(16.7%), 법령 6건(14.3%), 기타 3건(7.1%) 등이 있었다. 다수의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 교육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1>).

<표 11> 세부주제: 정책, 제도 및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정책 및 제도	1							1	1	1		1	1		1	7
2) 현황 및 실태				1	1		2		3	3	5	1	4	4	2	26
3) 법령		1				1	1	1			1				1	6
4) 기타				1	2											3
계	1	1	0	2	3	1	3	2	4	4	6	2	5	4	4	42

정책,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연구주제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초반에는 정책 및 제도, 현황 및 실태, 법령, 기타 연구가 비슷한 수로 이루어졌으나, 영재교육이 본격 시행된 2008~2012년에는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가 57.1%, 2013~2017년에는 76.2%까지 증가하였다. 각 시기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법령에 대한 연구는 각 시기 1~3건으로 소수 이루어졌다(<표 12>).

<표 12> 시기별 세부주제: 정책, 제도 및 현황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정책 및 제도	1	14.3	3	21.4	3	14.3	7	16.7
2) 현황 및 실태	2	28.6	8	57.1	16	76.2	26	61.9
3) 법령	1	14.3	3	21.4	2	9.5	6	14.3
4) 기타	3	42.9		0.0		0.0	3	7.1
계	7	100	14	100	21	100	42	100

나.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주제 중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된 연구는 교수학습전략,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및 효과성 분석, 프로그램 및 기관 평가, 기타 등으로 구분되었다. 총 124건 중 프로그램 개발, 사례, 효과성 분석 관련 연구가 74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22건(17.7%), 교수학습 전략 14건(11.3%), 프로그램 및 기관평가 5건(4.0%) 등이었다(<표 13>).

<표 13> 세부주제: 교육과정, 프로그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교수학습 전략	1		1		1		1	1	3	1		1	1	2	1	14
2)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1	1			1	2	1	1		3	2	5	2	1	2	22
3) 프로그램 개발, 사례, 효과성 분석	7	8	1	4	1	2	5	7	9	6	3	5	5	6	5	74
4) 프로그램, 기관평가						1					1	2		1		5
5) 기타		4							1	1		1	1		1	9
계	9	13	2	4	3	5	7	9	13	11	6	14	9	10	9	12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주제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세 시기 모두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각각 67.7%, 65.9%, 49.0%). 초반에는 소수였던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에 대한 연구는 9.7%, 15.9%, 24.5%로 점차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영재교육 시행 초반에 0건이었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도 후반기에는 4건(8.2%)으로 증가하였다(<표 14>).

<표 14> 시기별 세부주제: 교육과정, 프로그램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교수학습 전략	3	9.7	5	11.4	6	12.2	14	11.3
2)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3	9.7	7	15.9	12	24.5	22	17.7
3)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및 효과성	21	67.7	29	65.9	24	49.0	74	59.7
4) 프로그램 및 기관 평가		0.0	1	2.3	4	8.2	5	4.0
5) 기타	4	12.9	2	4.5	3	6.1	9	7.3
계	31	100	44	100	49	100	124	100

다. 영재특성

전체 영재연구 주제 중 절반을 차지한 영재특성에 관한 연구를 세부주제로 분류한 결과, 인지적특성, 정의적특성, 행동적특성, 생물학적특성, 창의성, 환경, 진로, 인식 등으로 구분되었다. 총 347건 중, 영재의 정의적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124건(35.7%), 인지적특성 관련연구가 118건(34.0%)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수행되었고, 행동적특성 35건(10.1%), 창의성 23건(6.6%), 영재학생의 인식 20건(5.8%), 진로 13건(3.7%), 생물학적특성 6건(1.7%)이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인지 및 정의적특성과 관련된 연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5>).

<표 15> 세부주제: 영재특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인지적	7	5	1	3	3	4	7	9	17	10	15	14	11	7	5	118
2) 정의적	5	4	2	2	3	3	7	11	12	16	16	13	11	9	10	124
3) 행동적				1		1	4	3	4	1	7	6	3		5	35
4) 생물학적						1	1			1	2	1				6
5) 창의성	1	2	3	1	4	1	1	2	2	1	1	1		3		23
6) 환경								1		1	1	1	1	2	1	8
7) 진로					1	1		1	1			1	3	3	2	13
8) 인식	2				1				2		6	1	6		2	20
계	15	11	6	7	12	11	20	27	38	30	48	38	35	24	25	347

영재특성에 대한 세부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 세 시기 모두 인지적, 정의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각각 30.6~38.9% 이루어져 인지정의적 연구가 총 60~80%의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재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초반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각각 2.0%, 10.3%, 12.4%), 반대로,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초반에 활발했으나 점차 감소하였다(각각 21.6%, 5.6%, 2.9%)(<표 16>).

<표 16> 시기별 세부주제: 영재특성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인지적	19	37.3	47	37.3	52	30.6	118	34.0
2) 정의적	16	31.4	49	38.9	59	34.7	124	35.7
3) 행동적	1	2.0	13	10.3	21	12.4	35	10.1
4) 생물학적		0.0	3	2.4	3	1.8	6	1.7
5) 창의성	11	21.6	7	5.6	5	2.9	23	6.6
6) 환경		0.0	2	1.6	6	3.5	8	2.3
7) 진로	1	2.0	3	2.4	9	5.3	13	3.7
8) 인식	3	5.9	2	1.6	15	8.8	20	5.8
계	51	100	126	100	170	100	347	100

라. 선발, 판별

영재 선발 및 판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수행되었다. 관찰추천에 대한 연구가 12건(22.2%)으로 가장 많았으며(수학 2건, 과학 4건, 일반 4건), 그 다음, 과학영재성에 관한 선발, 판별 연구가 10건(18.5%)으로 많았다. 지능 등 영재성 일반에 대한 연구가 총 8건(14.8%), 음악영재성 관련 5건(9.3%), 미술 및 창의성 관련 각각 3건(5.6%), 수학, 인문사회영재성 관련 각각 2건(3.6%), 무용 및 발명영역 관련 각각 1건(1.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표 17>).

<표 17> 세부주제: 선발, 판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수학영재성					1				1							2
2) 과학영재성	1	1	3	1	1		1	2								10
3) 음악영재성										2	1		1	1		5
4) 미술영재성	1							1		1						3
5) 무용영재성										1						1
6) 인문사회영재성						1									1	2
7) 발명영재성													1			1
8) 창의성												1	1	1		3
9) 관찰 추천 일반	수학							1		1						2
	과학									2		2				4
	일반						1	1	1		2		1			6
10) 영재성일반	1		1			1		2	1	1					1	8
11) 기타		1			1				1			1	1	1	1	7
계	3	2	4	1	4	1	2	7	4	7	4	4	5	3	3	54

선발, 판별에 대한 세부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 중 초반에는 과학영재성에 대한 선발 및 판별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26.7%), 그 다음으로 영재성 일반(지능 등)이 13.3%, 수학영재성이 6.7%로 높았다. 그러

나 2008~2012년에는 관찰추천제의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가 약 3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고, 영재성 일반 25.0%, 과학영재성 15.0%의 비율이었다. 2013~2017년 에도 관찰추천제 관련 연구가 31.6%로 가장 많았고, 창의성, 음악영재성에 관한 연구도 각각 15.8% 이루어져 영역이 연구 영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시기별 세부주제: 선발, 판별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수학영재성	1	6.7	1	5.0	0	0.0	2	3.7
2) 과학영재성	7	46.7	3	15.0	0	0.0	10	18.5
3) 음악영재성	0	0.0	2	10.0	3	15.8	5	9.3
4) 미술영재성	1	6.7	2	10.0	0	0.0	3	5.6
5) 무용영재성	1	6.7		0.0		0.0	1	1.9
6) 인문사회영재성	1	6.7		0.0	1	5.3	2	3.7
7) 발명영재성		0.0		0.0	1	5.3	1	1.9
8) 창의성		0.0		0.0	3	15.8	3	5.6
9) 관찰추천제	수학		1		1		2	
	과학	0.0	2	30.0	2	31.6	4	22.2
	영역일반		3		3		6	
10) 영재성 일반	2	13.3	5	25.0	1	5.3	8	14.8
11) 기타	2	13.3	1	5.0	4	21.1	7	13.0
계	15	100	20	100	19	100	54	100

마. 교원

교원과 관련된 연구는 총 40건이 수행되었다. 교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24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 7건(17.5%), 연수 5건(12.5%), 수업 2건(5.0%), 평가 및 기타 각각 1건 (2.5%)의 연구가 수행되었다(<표 19>).

<표 19> 세부주제: 교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인식	1	1		1		1	1	1			3	2	5	4	4	24
2) 전문성					2	1			1		1	1	1			7
3) 연수					1						1	3				5
4) 수업, 교수법								1			1					2
5) 평가												1				1
6) 기타								1								1
계	1	1	0	1	3	2	1	3	1	0	6	7	6	4	4	40

교원 연구에 대한 세부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 시기 모두 교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각각 60%, 37.5%, 66.7%). 교원전문성에 대한 초반에 그 비율

이 40.0%였으나, 2008~2012년 25.0%, 2013~2017년 11.1%로 시간에 따라 점차 줄었으나, 반대로 교사연구에 대한 연구는 초반 0%에서 12.5%, 14.8%로 증가하였다(<표 20>).

<표 20> 시기별 세부주제: 교원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인식	3	60.0	3	37.5	18	66.7	24	60.0
2) 전문성	2	40.0	2	25.0	3	11.1	7	17.5
3) 연구		0.0	1	12.5	4	14.8	5	12.5
4) 수업, 교수법		0.0	1	12.5	1	3.7	2	5.0
5) 평가		0.0		0.0	1	3.7	1	2.5
6) 기타		0.0	1	12.5		0.0	1	2.5
계	5	100	8	100	27	100	40	100

바. 부모, 가족

부모, 가족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부모의 태도, 양육태도관련 연구였다. 총 19건 중 9건(47.4%)이 이에 관한 연구였으며, 부모의 인식 3건(15.8%), 부모지원, 부모상담 및 교육 각각 2건(10.5%), 부모성격, 스트레스, 기타 연구 등이 각각 1건(5.3%)씩 이루어졌다(<표 21>).

<표 21> 세부주제: 부모, 가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부모태도 및 양육태도						3	2	1			1			2		9
2) 부모성격						1										1
3) 부모지원							1						1			2
4) 인식							1		1		1					3
5) 스트레스						1										1
6) 부모상담, 교육											2					2
7) 기타								1								1
계	0	0	0	0	0	5	4	2	1	0	4	0	1	2	0	19

부모, 가족에 대한 세부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3~2007년, 즉 초반에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2008년 이후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반, 후반기 모두 절반 가량의 연구가 부모의 태도 및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였다. 중반에는 부모 인식에 관한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나(16.1%), 후기에는 부모상담, 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모의 태도, 양육태도 다음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28.6%)(<표 22>).

<표 22> 시기별 세부주제: 부모, 가족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부모태도 및 양육태도			6	50.0	3	42.9	9	47.4
2) 부모성격			1	8.3		0.0	1	5.3
3) 부모지원			1	8.3	1	14.3	2	10.5
4) 인식			2	16.7	1	14.3	3	15.8
5) 스트레스			1	8.3		0.0	1	5.3
6) 부모상담, 교육				0.0	2	28.6	2	10.5
7) 기타			1	8.3		0.0		5.3
계	0	0	12	100	7	100	19	100

3. 연구관련 영역(과목)

연도별 작성된 논문의 관련 영역을 살펴보면, 영역일반이 203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영재성 영역, 즉, 교과목 영역 중에서는 과학이 195건(36.0%), 수학이 56건(10.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술 32건(5.9%), 정보 16건(3.0%) 등이었고, 융합, 인문사회 및 언어, 발명 등은 10건 내외로 연구가 소수 수행되었다(<표 23>).

<표 23> 연도별 연구관련 영역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수학	2		3	1	4	3	1	6	5	5	7	7	2	6	4	56
2) 과학	15	16	3	7	4	6	11	18	24	22	14	18	6	17	14	195
3) 융합									2			3	3	2	2	12
4) 인문사회, 언어	2	1	2		1		1		2	1				1	1	12
5) 예술	1	1	1	1			1	4	2	4	6	5	3	2	1	32
6) 발명									1	2	4	2	1			10
7) 정보(SW)				2			1	3	1		1	1	4		3	16
8) 영역일반	7	9	6	4	15	10	15	14	18	16	28	14	28	9	10	203
9) 기타												1	1		3	5
계	27	27	15	15	24	19	30	45	55	50	60	51	48	37	38	541

연구관련 영역에 대한 세부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3~2007년, 2008년~2013년, 2013~2017년 세 시기 모두 과학 및 영역일반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영역일반에 대한 연구는 36.7~38.5%로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고, 과학영역 관련 연구는 41.3%, 40.7%, 29.6%로 후반부에 다소 비율이 감소했다. 각 시기, 예술, 발명, 정보, 인문사회 영역 모두 10% 미만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특히 인문사회 및 언어 연구는 후반부에 1% 미만으로 이루어져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24>).

<표 24> 시기별 세부주제: 연구관련 영역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수학	10	9.2	20	10.1	26	11.2	56	10.4
2) 과학	45	41.3	81	40.7	69	29.6	195	36.0
3) 융합		0.0	2	1.0	10	4.3	12	2.2
4) 인문사회, 언어	6	5.5	4	2.0	2	0.9	12	2.2
5) 예술	4	3.7	11	5.5	17	7.3	32	5.9
6) 발명		0.0	3	1.5	7	3.0	10	1.8
7) 정보(SW)	2	1.8	5	2.5	9	3.9	16	3.0
8) 영역일반	42	38.5	73	36.7	88	37.8	203	37.5
9) 기타		0.0		0.0	5	2.1	5	0.9
계	109	100	199		233		541	100

4. 연구방법

연구에 활용된 연구방법을 분류, 조사한 결과 총 577건의 방법 중 양적연구의 건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양적연구-비실험연구가 총 201건으로 34.8%를 차지하였으며, 조사연구 95건(16.5%), 질적연구 84건(14.6%), 문헌연구 60건(10.4%) 순으로 많았다. 그 외 프로그램 개발 42건(7.3%), 도구개발 36건(6.2%), 양적연구-실험연구 20건(3.5%), 네트워크분석 연구 12건(2.1%) 등으로 나타났다(<표 25>).

<표 25> 연도별 연구방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 문헌연구	2	4	1	2	4	4	7	5	6	5	10	5	4		1	60
2) 조사연구	9	7	1	2	4	4	3	5	14	5	4	4	23	5	5	95
3) 양적연구-실험연구	1	2		1	2	1	1	3	6		1		2			20
4) 양적연구-비실험연구	8	5	5	4	8	8	12	16	16	20	25	16	23	18	17	201
5) 질적연구		1		1	2	1	6	12	9	9	10	16	4	7	6	84
6) 혼합연구		2				1		1	5	1	2	3		3		18
7) 프로그램 개발	6	1	2	2	1	1	4	3	6	3	2	5	2	1	3	42
8) 도구 개발	1	1	4	1	1	1	1	5	2	4	3	3	5	2	2	36
9) 네트워크 분석											2	3	3	2	2	12
10) 기타		4			1			1		1	1			1		9
계	27	27	13	13	23	21	34	51	64	48	60	55	66	39	36	577

연구관련 영역에 대한 세부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3~2007년, 2008년~2013년, 2013~2017년 세 시기 모두 양적연구-비실험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9.1%,

33.0%, 38.7%). 2003~2007년에는 조사연구 방법을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였고(22.3%), 2008~2012년, 2013~2017년에는 조사연구 방법과 함께(14.2%, 16.0%) 질적연구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17.0%, 16.8%). 실험연구 방법은 초반에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후반부에는 약 1%의 비율로 활용되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표 26> 시기별 세부주제: 연구방법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전체	
	건 수	%	건 수	%	건 수	%	건 수	%
1) 문헌연구	13	12.6	27	12.4	20	7.8	60	10.4
2) 조사연구	23	22.3	31	14.2	41	16.0	95	16.5
3) 양적연구 -실험연구	6	5.8	11	5.0	3	1.2	20	3.5
4) 양적연구 -비실험연구	30	29.1	72	33.0	99	38.7	201	34.8
5) 질적연구	4	3.9	37	17.0	43	16.8	84	14.6
6) 혼합연구	2	1.9	8	3.7	8	3.1	18	3.1
7) 프로그램 개발	12	11.7	17	7.8	13	5.1	42	7.3
8) 도구 개발	8	7.8	13	6.0	15	5.9	36	6.2
9) 네트워크 분석	0	0.0	0	0.0	12	4.7	12	2.1
10) 기타	5	4.9	2	0.9	2	0.8	9	1.6
계	103	100	218	100	256	100	577	100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15년 간 발간된 영재교육연구 학회지의 논문 515편을 분석하여 영재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관련 영역, 연구방법 등을 연도별로 분류하였고, 이 중 연구주제는 세부 주제로 구분하여 분류, 분석하였다. 또한, 1차, 2차,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에 따라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으로 구분하여 위의 각 분류들에 대한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총 515편 중 382편(7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2건(15.2%)로 많았다. 즉, 대부분의 연구대상은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를 지도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 학습자의 학교급을 분류한 결과, 총 450건 중 중학교 학생 160건(35.6%), 초등학교 학생 150건(33.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이 96건(21.4%)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여전히 영재교육 연구의 관심 대상은 제도권 안에 있는 초, 중, 고 학령기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주요 연구대상이었으며, 일부 영재고 및 과학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령기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연구주제는 정책, 제도 및 현황,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영재특성, 선발 및 판별, 교원, 부모 및 가족, 기타로 구분된 총 630건 중 영재특성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347건, 55.1%),

그 다음으로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24건, 19.7%). 세부 주제를 보면, 정책, 제도 및 현황에서는 현황 및 실태 관련 연구가 42건 중 26건 (61.9%)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주제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사례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74건, 59.7%). 영재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영재의 정의적특성(124건, 36.7%), 인지적특성(118건, 34%)이 전체 연구의 2/3 정도의 비율로 수행되었고, 두 특성에 대해 거의 비슷한 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인지 및 정의적 영역 모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발 및 관별에 대한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관찰추천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12건, 22.2%), 학문영역으로는 과학영재성(10건, 18.5%)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연구는 교원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24건, 60%), 상대적으로 전문성, 연수 관련 논문은 적었다. 부모, 가족 주제에서는 약 절반의 연구가 부모의 태도 및 양육태도에 대한 것이었고(9건, 47.4%), 부모의 인식, 지원, 상담, 교육 등의 주제의 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연구-비실험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고(34.8%),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16.5%). 최근, 소셜네트워크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 등과 같이 새로운 연구분석 방법과 도구가 개발되어 사회과학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의 특성 및 성과, 다양한 변인 간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실행시기에 따라, 2003~2007년, 2008~2012년, 2013~2017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위의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7>).

<표 27>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 연구의 특징

시기/목표	방향	연구
1차 (2003-2007) 국가발전에 기여할 세계적 수준의 소수 정예 인력 양성	영재성 개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대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함(81.8%) - 중학생(39.9%), 고등학생(25.3%)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음 - 영재의 특성관련 연구 중 인지적, 정의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약 70%를 차지함 - 영재 선발 관련 연구가 13.0%의 비율로 이루어짐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약 28%를 차지하며, 그 중 프로그램 개발, 사례, 효과성 연구가 약 68% 비율로 수행됨
	고등교육 단계와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관련연구 없음
	영재교육 담당교육의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에 관한 연구가 이 시기(5년 간) 전체 연구 중 6.0%의 비율로 수행됨 - 교원 관련 연구 총 5건 중 인식 3건, 전문성 2건의 연구가 이루어짐
	영재교육 연구지원 기능강화	관련연구 없음
	영재교육 지원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건의 정책, 제도 및 현황 연구 중 1건의 법령 관련 연구 수행됨

종합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 학습자 대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된 시기임 ○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가 관련 주제의 약 2/3 비율로 수행됨 ○ 교원에 대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짐
	기타	○ 수학 및 과학 영역 관련 연구가 5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영역일반 연구는 38.5%의 비율로 수행됨 ○ 양적연구·비실험연구(29.1%) 및 조사연구(22.3%)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
2차 (2008-2012)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영재교육 기관 특성화	- 영재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이 시기 연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그 중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및 효과성 연구가 약 66% 수행됨
	영재교육 기관 운영 개선	-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 44건 중 프로그램 평가 및 기관 평가에 관한 논문이 1건 수행됨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 관찰추천제 관련 연구가 시작됨: 선발, 판별 주제 중 약 30%의 비율로 연구가 수행되었음 - 영재성 일반에 대한 연구가 약 25% 비율로 수행됨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교원 관련 연구는 약 3.5%의 비율로 수행됨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	- 정책, 제도, 현황 연구 14건 중 3건의 법령 관련 연구가 수행됨(21.4%)
종합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 프로그램 개발, 사례, 효과성 연구가 관련 주제에서 절반 이상으로 수행되었음 ○ 교사관찰추천제가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됨 ○ 특정 분야영재성을 넘어서 영역 일반적 영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됨 ○ 교원 인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음
	기타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임 ○ 수학 및 과학 영역 관련 연구가 50.8%, 영역 일반 연구가 36.7%로 이루어짐 ○ 양적연구·비실험연구가 33.3%, 질적연구가 17.0% 비율로 활용됨; 1차 시기에 비해 질적연구 방법 활용 비율이 증가
3차 (2013-2017)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 음악영재성(15.8%), 인문사회영재성(5.8%), 발명영재성(15.8%) 등 영역이 확대됨 - 관찰추천제 관련 연구가 약 31.6% 이루어짐 - 영재특성에 대한 연구 중 인지적, 정의적특성 관련 연구가 약 65% 수행됨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 현황 및 실태 관련 연구가 관련 영역에서 76.5% 수행됨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 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 중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및 효과성 연구가 49.0%,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연구가 약 24.5% 수행됨
	우수교원 확보·지원강화	- 전체 27건의 교원관련 연구 중 18건(66.7%)가 인식에 대한 연구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 정책, 제도 및 현황 연구 중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가 3건(14.3%) 수행됨
종합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 영재성 연구 영역이 다소 확대되었음(음악, 미술, 발명 등) ○ 영재교육 현황 및 실태 관련 연구가 관련 영역에서 76.2% 비율로 이루어짐 ○ 관찰추천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됨 ○ 단편적인 수업 개발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수업모형 연구를 수행함 ○ 교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관련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함
	기타	○ 수학 및 과학 영역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로 연구되었으나(40.8%), 예술(7.3%), 융합(4.3%), SW(3.9%), 발명영역(3.0%) 연구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됨 ○ 양적연구·비실험연구가 여전히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음(38.7%) ○ 네트워크분석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시작됨(4.7%)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년)의 목표 중 하나인 ‘영재성 개발기회의 확대’, 즉, 연구대상자를 0.5%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요 목표였으며, 이 시기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교사나 학부모보다는 학습자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81.8%). 특히 학습자 특징 중 인지, 정의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영재특성 관련 연구 중 약 70%를 차지해, 영재학습자의 인지, 정의적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원에 대한 연구는 소수 이루어졌고, 수학 및 과학 영역 관련 연구가 50.5%, 영역일반 연구가 38.5%의 비율로 이루어져, 교과 영역 중 수·과학에 집중되어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면에서는 절반 이상의 연구가 양적연구·비실험연구 및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시기는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학생과 영재교육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년)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을 특성화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효과성 연구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주제 내에서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프로그램 평가 및 기관 평가에 대한 논문은 총 1건 수행되어 프로그램 및 기관 개선과 관련된 연구는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교사관찰추천제가 시작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또한 학습자에만 집중되었던 1차 계획 시기와 달리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학 및 과학 영역의 연구가 50% 이상, 영역 일반 연구가 약 37%로 이루어져 교과영역에서는 여전히 수·과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 시기와 같이 연구자들은 양적연구·비실험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나(33.3%),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17.0%로 증가하여 조사연구 방법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질적연구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차 영재교육진흥계획(2013~2017년)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교육기관을 내실화하여 고교·대학 연계체제를 강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영재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이 기존의 수학, 과학 중심에서 음악, 미술, 발명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관찰추천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전 시기에 시작된 선발방식을 개선하고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및 효과성 연구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관련 연구가 전에 비해 증가하여(9.7%→15.9%→24.5%)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데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또는 제도가 현재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증가하여(28.6%→57.1%→76.2%)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의 연구가 다수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과 관련된 연구는 앞 두 시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나타났고(66.7%), 상대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연수에 대한 연구는 각각 11%, 14.8%로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아, 앞으로 영재교원의 전문성 신장, 우수교원 확보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기별 연구동향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들이 전체 연구대상의 90%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유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인지, 정의적 발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 영재를 정의하고 이들을 교육하며 인지, 정의적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조기교육,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흐름 안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와 관련하여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학생을 위한 재능개발’을 위한 교육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연구, 맞춤형 교육, 모듈형 수업, 미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효과성 분석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영역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영재교육의 영역을 다양화하여 수·과학 분야 외의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7년 현재 77.3%의 비율로 수·과학 분야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수·과학 이외의 영재교육이 22% 이상 실시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다양한 분야의 영재성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및 교원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선발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교사관찰추천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5년 간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더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모든 학생을 위한 재능개발 차원에서의 학생 선발방식의 타당성, 적절성 확보 방안을 위한 연구, 다양한 선발방식 및 선발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으로의 연계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 기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1차~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공통적으로 영재교육 기관을 특성화,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2013~2017년에는 영재교육 현황 및 실태 관련 연구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연구물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영재교육 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컨설팅 등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내실화, 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여섯째, 영재교육 연계체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 연계, 각 기관 간 연계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재학생의 성과관리 데이터베이스, 한국 영재교육 중단연구 등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장기 관찰, 추적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연구가 교원 전문성 및 효과적인 교원 지원 측면에서 이루질 필요가 있

다. 초기에 비해 교원 관련 연구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교원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어 교원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 제도 등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 및 이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 우수교원 확보 등과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연구 학회지에 게재된 총 515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재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영재교육 연구가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과 함께 시행되는 정책 및 교육을 진단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후 이루어져야 할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영재교육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인 ‘영재교육연구’ 학회지의 최근 15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행 시기로 분류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영재교육 관련 연구가 게재된 그 외의 학회지 논문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전체 영재교육 연구현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영재교육관련 논문을 추가로 분석, 흐름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자료와 관점을 통해 영재교육 발전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 (2010). 과학영재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1), 54-67.
- 교육부 (2003). 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08).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13).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18).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부.
- 민경아, 유미현, 고희경 (2011). 수학영재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4(3), 393-421.
- 박경빈 (2012). 한국 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2(4), 823-840.
- 박혜란, 정웅열, 이영준 (2017). 정보영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2003~2016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5(2), 218-219.
- 안혜란, 유미현 (2015). 영재교육에서의 융합인재교육(STEAM) 연구 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5(3), 401-420.
- 윤진아, 김수진, 서혜애 (2016). 2010~2015년 사회네트워크분석(SNA) 방법 활용 국내외 영재교육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6(2), 347-363.
- 윤진아, 서혜애 (2016).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과학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문헌분석 대 사회네트워크분석. **과학교육연구지**, 40(3), 267-286.
- 이상희, 최선일 (2015). 한국 영재교육 연구의 현황 및 성과: 2003-2012. **영재교육연구**, 25(6), 881-904.

- 이신동, 엄윤재 (2018). 경제적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홀리스틱융합영재교육 연구**, 22(2), 29-54.
- 이은선, 윤서진, 이정숙, 김화례 (2017). 국내 예술영재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무용과학회지**, 34(1), 25-36.
- 이정석, 김용권 (2016). KERIS를 활용한 과학영재교육에서의 STEAM 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9(2), 152-162.
- 이정재 (2016). 국내 정보과학영재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사회복지경영연구**, 3(1), 215-228.
- 최병연, 이명숙 (2015). 영재교육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한국영재교육학회 학술지 ‘영재와 영재교육(2010-2014)’에 발표된 논문은 중심으로. **영재와 영재교육**, 14(4), 19-37.
-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 <https://ged.kedi.re.kr>. (검색일 2018. 11. 2).
- 한기순, 양태연, 박인호 (2007). 최근 국내영재교육연구의 흐름: 2000-2006년도 연구물 분석. **영재교육연구**, 17(2), 338-364.
- Boyatzis, R. (1998). *Transforming qualitative information: Thematic analysis and code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by Period of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Yoojung Chae

KAIST

Hyunjoo Lee

Myongji University

Sunghye Lee¹⁾

KAIST

In this study, we analyzed trends in the study of gifted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last 15 years from the year 2003 when the first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was implemented to the end of the third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2017. Total 515 research pap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4 basic categories: research subject, topic, field, and method, and the results were additionally classified into sub-categories. In addition,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by period from 2003 to 2007, from 2008 to 2012, and from 2013 to 2017, depending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2003-2007, the research on learner was the most conducted, and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gifted education programs was accounted for more than two-thirds of research topics. Regarding research area, more than half of the research were concentrated on the mathematics and science area, and 38.5% of the research were the general area. In addition, quantitative research-nonexperimental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2008-2012, as the teacher observation recommendation was initiated, a number of related research were carried out and the research on the general giftedness as well as the field specific giftedness was conducted.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research were still conducted in the mathematics and science area. Quantitative and nonexperimental research were mostly used, but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was also increased. Finally, in 2013-2017, the research on giftedness was expanded to music, art, and invention area, and the research on teacher observation recommendation was actively conducted. In addition, the research on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model were conducted from a macro perspective as

1) Corresponding author slee45@kaist.ac.kr

well as cours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needed research areas and contents for better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Gifted Students, Research in Gifted Education, Research Trend in Gifted Education, Research Status in Gifted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8년 11월 14일
수정 원고접수: 2018년 12월 26일
최종 게재 결정: 2018년 12월 28일